

I. 2019년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

1. 2019년 재정전망

□ 세 입

-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석유업계 영업실적 호전 및 원유 가격하락에 따른 석유 화학업계의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로 지방세 세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경기의 변동성과 미국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의 향방에 따른 대외경기 불확실성은 여전.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, 수수료수입 및 재산 매각수입 등에 의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지방교부세는 대·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은 어려우나 국세의 세입 여건 개선에 따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
-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아동수당,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의존재원 증가 전망

□ 세 출

- 민선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, 도로·교량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 정비 및 소상공인 생활 안정, 농축·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, 기후변화 대응,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택지 개발 및 공원 조성, 도서식수원 개발 사업 등 「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」 건설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투자해 나가야 할 실정으로 재정지출 수요 증가
- 인건비, 공공요금 등 법적·의무적 경비, 경상적 경비 및 각종 시설물 신축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는 소폭 증가
-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기초연금 등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, 노인·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, 영·유아 보육,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 지출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, 특히 국도비 매칭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더욱 증가
- 평생교육 및 친환경 학교급식 등 미래를 이끌고 갈 인재육성에 대한 지출과 문화, 예술, 체육관련 지출 수요도 증대

2. 재정운용 방향

- 일자리 창출사업, 마리나 조성 등 해양 관광 개발사업, 정주여건 개선 사업,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농어업 신성장 동력화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 등 역점 추진시책 및 마무리 사업 위주 편성
-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 견지
- 도시계획도로, 농어촌도로 등 계속 추진 중인 사업, 연례 반복적인 도로 · 교통 · 공원 · 상하수도 유지관리 등 밀착형 서민생활 체감사업 반영
-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비 투자 등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
- 예산편성 ·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,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

① 시민공감 감동시정

- 사랑방좌담회 및 열린 시민청원 제도를 통한 시민과 직접 소통 및 시책 추진
-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 확대 및 효율적 인적관리 시스템 운영
-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여수시 미래발전 선도

② 균형있는 상생경제

- 경도 · 화양지구 조기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추진
-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따른 적극적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
-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 · 유통 선진화
- 삼동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신소재 미래산업 등 혁신산단 지원 강화

③ 사람중심 나눔복지

- 어린이, 장애인, 노인,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강화
-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및 자율편성권 강화
-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등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④ 품격있는 문화관광

- 통계시스템 구축 및 관광안내 앱을 활용, 물가관리, 서비스 개선 도모 및 시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추진
- 고흥~여수 연도교, 여수~남해 도로 건설, 마리나항만 개발, 시립박물관 건립 등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본 인프라 구축 추진
- 아름다운 섬과 자연경관을 토대로 세계 섬박람회 유치 기반 마련
- 이순신 문화브랜드사업 및 각종 문화공연 추진

⑤ 살기좋은 정주환경

-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
-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
-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에 걱정 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